

광주시-SKT-IDQ, 양자산업 활성화 협력

양자기술 공공·행정분야 도입... 광융합산업 선도도시 조성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MOU 산·학·연·관, 혁신기술 확보 협력 정부 정책지원 요청 공조 대응



광주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와 SK텔레콤·IDQ가 '빛 고을' 광주에 양자정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광역시와 SK텔레콤, IDQ코리아는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R&D, 공공·행정 분야에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과 SKT 조영록 CR성장지원실장, IDQ코리아 하민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 양자분야 협력이 논의되는 등 국내

외에서 양자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측 협력 발표가 국내 양자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측은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서는 등 광주시에 양자 관련 기술과 인력·산업이 집중될 수 있는 생태계

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光)산업'을 선도해 왔던 광주는 빛의 성질을 이용하는 양자기술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하고, 향후 양자산업이 결합된 광융합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T는 광주시에 양자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광주시는 R&D 및 공공·행정 분야에서 양자기술 도입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정부 사업인 '디지털 뉴딜' 중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하고, 양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요청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SKT는 또 광주에서 준비 중인 'K-헬스 공공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

생태계 구축' 사업 관련 데이터 보안 강화 방안으로 양자암호기술 적용을 검토 중이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글로벌 ICT 리더인 SK텔레콤과 양자산업 대표기업인 IDQ, AI 중심도시 광주가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양자기술개발과 적용 분야 확대·발굴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SKT 조영록 CR성장지원실장은 "최근 양자기술에 대한 국가적 욕망을 주요 골자로 하는 'ICT 특별법'이 시행돼, 이번 협약의 의미가 더 크다"며, "클러스터 구축 등 협력을 통해 양자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용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무안군 관내 요식업체 컨설팅 실시

전남 무안군은 지난 2월부터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요식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 보급 등 무안 맛집 육성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그동안 무안연꽃축제 요리경연대회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컨설팅은 TBK외식창업전략연구소와 조리의 명인 구본길 대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효종갱 낙지전골 등 신 메뉴 30여 종을 업체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또한 업체와 전문가들은 시식 평가회 준비를 위한 위생관리와 메뉴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여수산단 내 15mW급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들어선다

여수시 동서발전-GS칼텍스 투자협약 2023년까지 발전소 건설 1000억 투입 권오봉 시장 "수소산업 생태계 견인"



17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수소경제활성화 및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여수시는 17일 상황실에서 한국동서발전, GS칼텍스와 '수소경제활성화 및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협약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동서발전과 GS칼텍스는 여수 국가산단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소 내 유희부지에 1천억 원을 투자해 15MW급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2023년까지 짓기로 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석유화학공정 중에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공급받아 산소와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며 순수한 물만 발생된다.

부생수소를 이용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기존 발전방식에 비해 소음이 적고 효율이 높으며, CO2 등 대기오염물질과 폐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동서발전과 GS칼텍스는 소속 직원들의 여수 거주, 여수 시민 채용, 지역물품 우선 구매, 지역기업 우선 이용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노력하기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여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두 기업과 투자협약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정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에너지 성장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jiacecom@

목포시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

목포시가 관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맛의 도시 9미(味)·특산물 활용 취·창업지원사업' 교육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취·창업 의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국비 2억원을 확보해 '맛의 도시' 목포의 특성에 맞춰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외식업 및 특산품 등 취·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또는 외식업종 창업 2년 미만(교육 후 창업 업종 변경 조건) 여성을 대상으로 총 32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생은 9미(味)·특산물 활용 외식 전문·개발 교육(80시간)과 창업기초 및 전자상거래 교육(40시간)을 제공받는다. 시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외식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심사를 통해 12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영양군, 성별영향평가 사업 성차별 검토 "동천 걸으며 다양한 생태체험 즐기세요"

컨설턴트 초청해 담당자 대면 컨설팅

영양군은 6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전문가(컨설턴트)를 초청해 1대1 대면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대면컨설팅은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9개를 선정,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전문 컨설턴트와 사업담당자가 본인의 사업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1대1 대면 컨설팅으로 진행했다.

영양군은 세출예산 단위사업 120개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사업, 영양군 SNS홍보단 운영 등)을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가 19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사업담당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주요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정책개선과 반영 계획안을 도출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분석·평가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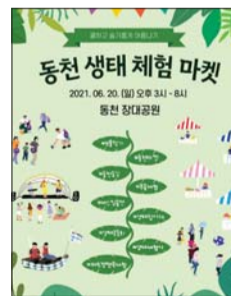
영양군은 "영양군은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전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순천시 20일 생태체험마켓 오픈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증가와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오는 20일 동천 장대공원에서 생태체험마켓을 연다.

순천대학교에서 활동하는 삼산풍류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5시부터 시작되어, 목공체험, 어린이 생태탐사, 페트병 뗏목체험, 버스킹 공연과 프리마켓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생태탐사는 생태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동천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천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일명 순쓰단)은 참여자에 한하여 봉사시간 1시간을 인정받는다. 어린이 생태탐사와 순쓰단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신청 가능하다.



또한 페트병 뗏목체험은 페트병으로 만든 뗏목을 타고 동천 건너기를 시도해 눈여겨볼 만하다.

양지현 대표는 "새로운 도전에 많은 시민들의 응원을 바란다"며, "보물찾기, 생태운동회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타 지역 외출이 힘든 시기에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삼산풍류단은 순천대학교를 기반으로 학생·청년·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6년부터 대학교 대표축제 '고고장'을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순천(전남)=김진수 기자 jsk6239@

담양군 민주평등 위원 추천기준 마련

담양군은 추천의 다양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2년 임기의 군협의회 자문위원 35명 중 담양군수가 추천하는 11명에 대해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자 선정에 있어 관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 협의회에 2회 이상 자문위원을 역임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도록 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관내 읍·면별로 안배 지역 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균형 있게 표출하도록 했다.

/담양(전남)=최영성 기자 dudtkd2343@